

2023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11 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필자마다 쓰기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지식 변형 모형과 지식 ( ㉠ ) 모형은 선행 지식 보유 여부에 따른 쓰기 과정의 차이를 잘 보여 준다.

지식 변형 모형은 내용 지식과 담화 지식을 충분히 지닌 필자의 쓰기 과정을 보여 준다. 이러한 필자의 경우에는, 작문 수행의 여러 제약들을 능동적으로 고려하고 반성적인 사고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필자의 쓰기 목표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식 ( ㉡ ) 모형은 내용 지식과 담화 지식이 부족한 필자의 쓰기 과정을 보여 준다. 이러한 필자는 작문에 소요되는 인지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여 쓰기 과정 중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화하거나 세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지식을 필자의 쓰기 목표에 따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채, 글을 써 내려가는 행위 자체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적 구분과 실제 쓰기 양상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능숙한 필자라 하더라도 간단한 소개의 글을 쓸 때에는 지식 변형을 수반하는 글쓰기를 하지 않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두 모형은 이처럼 필자가 글을 쓰는 수사적 ( ㉢ ) 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필자, 독자, 과제 등과 같은 ( ㉣ ) 맥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2.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복합 표현의 의미는 구성 요소의 의미와 그 결합 방식을 따라 결정된다는 원리를 ( ㉠ ) 원리라고 한다. 통사적 표현의 의미는 대개 이 원리를 따라 결정되나 복합어에서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정도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 (1) 왼손: 왼쪽 손
- (2) 흙손: ㉠ 이진 흙이나 시멘트 따위를 떠서 바르고 그 겉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  
㉡ 흙투성이가 된 손

‘왼손’의 의미는 구성 요소 ‘왼’과 ‘손’의 의미로부터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된다. ‘흙손 ㉡’는 ‘흙’, ‘손’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투성이가 된’의 의미를 더 가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흙손 ㉠’은 ‘흙’과 ‘손’의 의미만으로는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왼손’, ‘흙손 ㉡’는 각기 부류를 나타내는 ‘손’을 관형어가 꾸며 주는, 일반적인 수식 구성의 결합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그 의미가 설명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부류를 나타내는 ‘손’을 수식어를 써서 한정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풀이하고 있음을 보면, ‘왼손’, ‘흙손 ㉡’와 ‘손’의 의미 관계는 ( ㉢ )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복합어 ‘왼손’과 ‘흙손 ㉡’의 의미는 구성 요소인 ‘왼’과 ‘흙’, 그리고 ‘손’ 각각의 의미와 그 결합 방식을 따라 결정되는 의미도 있고 새롭게 달라진 의미도 있다. 더불어 ‘흙손 ㉠’처럼 구성 요소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3. 다음은 면접에 관한 수업 대화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사: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답변 전략이 중요합니다. 개별 면접 중 일대일 면접의 사례를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례 자료]

면접관: 지원자는 10년 후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원자: 죄송하지만 '10년 후의 모습'이 직장에서의 모습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접관: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에 비추어 볼 때, 10년 후 우리 출판사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원자: 저는 책에 대한 신념이 분명합니다. 저는 10년 후에도 제 신념을 지키면서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이들이 책으로써 말할 수 있도록 출판의 기회를 확장해 가고 있을 겁니다.

면접관: 예, 잘 들었습니다.

교사: 제시된 사례에서 지원자가 ㉠ 효과적인 답변 전략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면접관의 요구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 그러면 다수의 면접관들이 다수의 지원자들을 동시에 평가하는 집단 면접에서는 어떤 답변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

교사: 답변 전략을 세우려면 집단 면접을 왜 하는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하는지를 살펴봐야겠지요. 그에 따라 면접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생: 집단 면접에서는 대개 여러 지원자가 미리 정해진 공통의 질문들에 각자 답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던데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도 집단 면접을 사용하는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교사: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 명을 함께 면접하면 개별 면접을 할 때보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개별 면접에서는 지원자에 따라 앞 질문에 이어지는 추가 질문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앞 지원자에 대한 면접관들의 인상이 뒤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단 면접으로 방식을 바꾸어 보면, 앞 지원자의 답변이 뒤 지원자의 답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의 측면에서 보면 면접관의 질문이 지원자의 특성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좀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학생: 예, 그런데 집단 면접에서는 다른 지원자들이 무척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이 점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염려가 돼요.

교사: 그래서 면접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실제 면접에 앞서 면접의 전 과정을 가상으로 연습해 보면 도움이 돼요. ㉢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경험해 본 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상상과 가정만을 갖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차이가 크니까요.

<작성 방법>

- [사례 자료]에 나타난 밑줄 친 ㉠을 쓰고 그 목적을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1단어를 제시하고, 밑줄 친 ㉢의 관점에서 필요한 학습 활동 1가지를 서술할 것.

4. 다음은 중세 국어에 대한 탐구 수업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사: 오늘 수업에서는 중세 국어 음절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해요. 중세 국어에서 이렇게 단어 첫머리에 오는 복수의 자음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지요?

학생: 네, (㉠)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사: 중세 국어에서 음절을 구성하는 방법은 오늘날과 달랐어요. '밭'과 같은 단어에서 초성에는 'ㅃ'이 왔지요? 중세 국어에서 ㅃ으로 시작하는 소리는 'ㅍ' 말고도 'ㅃ, ㅍ, ㅍ', 'ㅃ, ㅍ' 같이 여러 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소리의 정체가 어땠는지는 몇 가지 방법을 써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시기의 현상이 현대 국어의 복합어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ㅃ'의 발음을 추정해 볼 단서를 찾아봅시다. 'ㅃ'을 가진 '밭'은 오늘날의 '참밭', '좁밭' 등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 (1) ㅃ + ㅃ → ㅃㅃ(ㅃㅃ) > 참밭  
ㅃ + ㅃ → ㅃㅃ > 좁밭

(1)은 '참밭'과 '좁밭'이 중세 국어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 주는데, ㉡(1)을 참고하여 중세 국어 '밭'과 현대 국어 '밭'을 비교하면 어두음의 개수는 어떻게 변화한 것 같나요?

... (중략) ...

교사: 중세 국어 발음을 추정할 단서를 복합어에서 찾는 방법 말고도, 이 시기에 일어난 음운 현상을 살펴보면 그 발음을 추정할 수 있어요.

- (2) 15세기 표기: ㅎㅍ  
16세기 표기: ㅎㅍ, ㅎㅍ, ㅎㅍ, ㅎㅍ

'ㅎㅍ'는 '하나'를 뜻하는 'ㅎ'과 '때'를 뜻하는 'ㅍ'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예요. 16세기에 ㉢ 중성 'ㄴ'이 'ㄹ'으로 동화된 현상이 반영된 표기를 살펴볼까요?

... (중략) ...

학생: 중세 국어 소리의 특성을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 자료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게 신기해요.

교사: 그래요. 중세 국어의 'ㅃ'은 현대 국어의 복합어 '참밭, 좁밭'을 통해서, 그리고 'ㅎㅍ'에서 일어난 음운 현상을 관찰 해서도 그 발음의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밑줄 친 ㉡에 대해 교사가 의도한 답변으로 적합한 내용을 문장 형식으로 서술할 것.
- 밑줄 친 ㉢이 조음 위치 동화인지 조음 방법 동화인지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ㅎㅍ'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할 것.

5. (가)는 작문 이론의 흐름을 다룬 글이고, (나)는 김 교사가 구성한 연구 수업의 활동지이며, (다)는 김 교사가 수업 후 작성한 소감문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작문 이론의 흐름**

현대의 작문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문 이론은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 작문 이론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텍스트를 ‘의미의 자율적인 단위’로 규정한다. 교육적 국면에서는 규범 문법의 준수, 수사학적 원리의 숙달, 모범적 텍스트의 모방 등을 그 핵심 원리로 삼는다.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텍스트를 ‘필자의 사고를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규정한다. 교육적 국면에서는 필자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세부 단계에 주목하여 각 단계별 문제 해결 과정을 지도하는 것을 그 핵심 원리로 삼는다.

사회구성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텍스트를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규칙의 집합’으로 규정한다. 교육적 국면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그 핵심 원리로 삼는다.

이들 작문 이론은 어느 이론이 더 우월하고 어느 이론이 덜 우월하다는 식으로 나누기보다, ‘쓰기’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나) 수업 활동지**

‘로봇세 도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자 한다. 다음 절차에 따라 한 편의 글을 써 보자.

- (1) 자신이 상정한 예상 독자가 누구이고, 화제에 대한 그들의 기존 입장과 배경지식 정도를 고려하여 글의 목적을 세워 보자.
- (2)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쓸 내용을 생성해 보자.
- (3)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해 보자.
- (4)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써 보자.
- (5) (4)에서 쓴 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 글을 고쳐 써 보자.

**(다) 수업 후 소감문**

오늘 작문 단원으로 연구 수업을 하였다. 대학에서 배운 작문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지를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쓰기 과정 중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소리 내어 말하도록 하여 녹음해 보기도 하였다.

작문 이론에 따라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뿌듯하기도 하였고, 쓰기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경험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사고기술 프로토콜을 읽으면서 쓰기가 반드시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방향적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예컨대, 학습 활동 (5)를 해결할 때 학생 A는 “㉠ 글이 왜 이렇게

산만하게 느껴지지? 생각해 낸 근거들의 개수는 많은데, 그것들끼리의 관계 정리가 잘 안 되네. 예전에 배운 문제 해결 구조로 근거들의 순서를 다시 배열해 보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처럼 ㉠ 쓰기 수행 중 언제든지 앞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애초에 떠올린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다듬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

**<작성 방법>**

- 김 교사가 수업 활동지를 구성하면서 고려한 작문 이론의 명칭을 쓰고, 그 이유를 (가)를 참조하여 서술할 것.
- (다)의 밑줄 친 ㉠에서 학생 A가 돌아간 쓰기 단계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이 무엇인지 (나)의 (1)~(4)에서 찾아 번호를 쓰고,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쓰기 특성을 1단어로 제시할 것.

6. (가)는 ‘인터넷 문서 읽기’ 수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교사 간 협의 내용이고, (나)는 수업에서 활용할 인터넷 문서 읽기 자기 점검표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교사 협의 내용**

교사 A: 어제 회의에서 우리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수업 목표는 ‘동일한 주제를 다룬 여러 인터넷 문서의 관점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학생들이 다룬 주제도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최근의 논쟁으로 정했지요.

교사 B: 학생들이 읽을 것들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이 수업의 장점입니다. 인터넷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여러 분야의 문서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누군가 골라 준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세상에선 직접 글을 찾아 읽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문서를 탐색하는 일에서 읽기가 출발하는 것이죠.

교사 C: 인터넷에 읽을거리가 많지만 학생들이 막상 자신이 찾아 읽은 문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인터넷에선 문서의 출처를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해요. 상업적 의도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거나 아예 허위 정보인 문서도 많으니 조심해야 하고요. 이런 읽기 전략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교사 D: 인터넷 문서를 읽을 때 학생들이 점검할 것이 또 있어요. 관련 연구를 보니, 많은 인터넷 독자들이 ㉠ 자기가 읽은 인터넷 문서들을 별개의 정보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우리 수업에서 기후 위기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문서를 읽을 때 특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 인터넷 문서 읽기 자기 점검표

자기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만족	미흡
① 내가 읽을 인터넷 문서를 검색하기 전에 주제에 관하여 나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고 싶은지, 어떤 문서가 필요할지 질문한다.		
② 내가 지금 검색해서 찾은 인터넷 문서가 내가 알고 싶은 주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③ 내가 지금 읽은 인터넷 문서가 내가 알고 싶은 주제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④ 내가 지금 찾아 읽은 인터넷 문서가 누가 만든 것이고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래서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평가한다.		
⑤ 내가 수행한 인터넷 문서의 탐색 과정이 내가 설정한 글 읽기 목적에 비추어 효율적이고 충분했는지 돌아본다.		
⑥ 내가 수행한 인터넷 문서 읽기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또는 그대로인지),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작성 방법>

- 교사 C가 강조하는 읽기 전략을 설명하고, 이것이 반영된 점검 항목 1가지를 (나)에서 찾아 번호로 제시할 것.
- 밑줄 친 ㉠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읽기 전략을 반영하여 (나)에 추가할 새로운 점검 항목을 1가지 제시할 것.

7. (가)와 (나)는 제재이고, (다)는 이를 학습하기 위한 교수·학습 계획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지금 부서버릴까”  
 “안돼, 오늘밤은 자게 하고 내일 아침에……”  
 “안돼, 오늘밤은 오늘밤은이 벌써 며칠째야? 소장이 알면……”  
 “그래도 안돼……”  
 두런두런 인물들 목소리 꿈결처럼 섞이어 들려오는  
 루핑집\* 안 단칸 벽에 기대어 그 여자  
 작은 발이 빠져나온 어린 것들을  
 불빛인 듯 덮어주고는  
 가만히 일어나 앉아  
 ㉠ 칠혹처럼 깜깜한 밖을 내다본다  
 - 이시영, 「공사장 끝에」 -  
 \* 루핑집: 물막이천으로 지붕을 한 집.

(나)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 있고  
  
 나는 ㉡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 문정희, 「비망록」 -

(다) 교수·학습 계획

- 단원 학습 목표: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 교수·학습 내용

문학의 ( ㉢ )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에서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 이해하기</li> <li>• (가)의 상황을 ㉢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삶으로 확장하여 이해해 보기</li> </ul>
2차시	<p>문학의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현실의 모습을 파악하고, 화자의 성찰적 태도 이해하기</li> <li>• (가)와 (나)에서 ㉣ 비유적 표현에 주목하여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 감상하기</li> </ul>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말을 2어절로 쓰고, 밑줄 친 ㉢의 내용을 밝힐 것.
- 밑줄 친 ㉣와 관련하여 밑줄 친 ㉠, ㉡이 형상화하는 의미를 각각 서술할 것.

8.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온달(溫達)은 고구려 평강왕 때의 사람이다. 얼굴이 못생겨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마음씨는 밝았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다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떨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신을 신고 저잣거리를 왕래하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바보 온달이라 하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므로 왕이 희롱하기를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커서는 대장부의 아내가 될 수 없으니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보내야겠다.” 하였다. 왕은 매양 그렇게 말하였는데, 딸의 나이 16세가 되어 상부(上部) 고씨(高氏)에게로 시집보내려 하니 공주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무슨 까닭으로 이전의 말씀을 고치시나이까? 필부도 식언(食言)을 하지 않으려 하거늘 하물며 지존하신 분께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오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말하였다.

“네가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 내 딸이 될 수 없으니 어찌 함께 살 수가 있으랴? 너는 갈 데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에 공주는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에 걸고 궁궐을 나와 혼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그 집에 이르렀다.

…(중략)…

온달은 우물쭈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 자식은 지극히 못나 귀인의 배필이 될 수 없고, 내 집은 지극히 가난하여 귀인의 거처할 곳이 못 되오.”

공주가 대답하였다.

“옛사람의 말에 한 말 곡식도 방아 찧을 수 있고, 한 자 베도 꿰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마음만 맞는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한 후에야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금팔찌를 팔아 농토와 집, 노비, 우마와 기물 등을 사니 살림살이가 다 갖추어졌다. 처음 말을 살 때에 공주는 온달에게 말하였다.

“아예 시장 사람들의 말은 사지 말고 꼭 국가의 말을 택하되 병들고 파리해서 내다 파는 것을 사 오도록 하시오!”

온달이 그 말대로 하였는데, 공주가 매우 부지런히 먹여 말이 날마다 살찌고 건장해졌다.

고구려에서는 봄철 3월 3일이면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날이 되면 왕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와 병사들이 모두 따라나섰다. 이에 온달도 기른 말을 타고 따라갔는데, 그 달리는 품이 언제나 앞에 서고 포획하는 짐승도 많아서,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때 후주의 무제가 군사를 보내 요동을 치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울 때, 온달이 선봉장이 되어 수십여

명을 베자, 여러 군사가 승세를 타고 싸워 크게 이겼다. 왕이 가상히 여기고 칭찬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사위다.” 하고, 예를 갖추어 맞이하며 작위를 주어 대형(大兄)을 삼았다. 그 후로 은총과 영화가 더욱 많아졌고, 위엄과 권세가 날로 성하였다.

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었다.

“신라가 우리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아 군현을 삼았으니, 백성들이 심히 한탄하여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어리석은 이 신하를 불초하다 하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가서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왕이 허락하였다. 떠날 때 맹세하기를 “계림현과 죽령 이서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하고, 나가 신라 군사들과 아단성 아래에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장사를 행하려 하였는데 상여가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사생(死生)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아아, 돌아갑시다!” 하였다. 드디어 들어서 장사 지냈는데, 대왕이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 『삼국사기』(열전) -

(나)

열전(列傳)은 실존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역사 기록이니만큼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 열전은 입전(立傳) 인물만을 부각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선행을 표창하고 악행을 경계함으로써 당대와 후세에 교훈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작성 방법>

- (나)에 근거하여 (가)에 드러난 열전의 일반적인 특성 2가지를 서술할 것.
- (나)를 참조할 때, 열전의 일반적인 특성과 달리 (가)에서 확인되는 독특한 특성 2가지를 서술할 것.

9. 다음은 「성산별곡」 본사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산동의 칙력(冊曆) 업서 사시를 모르더니  
 눈 아래 헤틴 경(景)이 절절이 절노 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미창(梅窓) 아적 버티 향기에 즙을 썬니  
 선옹(仙翁)의 희을 일이 곳 업도 아니흐다  
 울 밋 양디 편외 외씨를 빼허두고

[A] 미거니 도도거니 빗김의 달화내니  
 청문고스(靑門故事)\*를 이제도 잇다 홀다  
 망혜(芒鞋)를 뵈야 신고 독당을 훑더디니  
 도화 편 시내길히 방초주(芳草洲)의 니어세라  
 닷붓근 명경(明鏡) 둥 질로 그린 석병풍(石屏風)  
 그림애를 버들 사마 서하(西河)로 흠뻑 가니  
 도원은 어드매오 무릉이 여기로다  
 남풍이 건듯 부러 녹음을 헤터 내니  
 절 아는 괴소리논 어드러서 오듯던고  
 희황(羲皇) 벼개 우히 풋즙을 얼푼 썬니  
 공동 저즌 난간 물 우히 썬 잇고야  
 마의(麻衣)를 니미치고 갈건(葛巾)을 기우 쓰고  
 구브락 비기락 보는 거시 고기로다  
 흐르밤 비씨운의 홍백년(紅白蓮)이 섰거 피니  
 바람의 업서서 만산이 향기로다

... (중략) ...

[B] 공산의 싸힌 님홀 삭풍이 거두 부러  
 썬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텃공(天公)이 호스로와 옥으로 고졸 지어  
 만슈천림(萬樹千林)을 꾸며곰 널세이고  
 얹여홀 ㄹ리 어리 독목교(獨木橋) 빗겼는디  
 막대 맨 늘근 중이 어니 덜로 간닷 말고  
 ㉠ 산옹의 이 부귀를 늣드려 현스 마오  
 ㉡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를 츠즈 리 이실세라

- 정철, 「성산별곡」 -

\* 청문고스: 진나라 소평이 청문 밖에 참외를 심고 살며 벼슬하지 않았다는 고사.

- <작성 방법>
- [A]에서 화자가 적막 산중에 살아가는 주인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 내고 있는지 공간과 인물의 측면에서 서술할 것.
  - [B]에서 계절적 배경을 고려하여 밑줄 친 ㉠의 함축적 의미를 쓰고, 밑줄 친 ㉡에 담긴 화자의 심리를 서술할 것.

10.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명사형 어미 '-기'는 앞말을 품사 변화 없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므로 파생 접미사 '-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리고 명사형 어미 '-기'는 ㉠ '-음'과 대립하여 완결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관용 구성이나 다른 어미의 일부로 굳어져 쓰이게 되면, 명사형 어미 '-기'의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참고하면 '-기'에 조사가 결합하여 통합형 전체가 또 다른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명사형 어미 '-기'를 구분할 수 있다.

- 밥을 많이 먹고 쑥쑥 ㉠ 크기 바란다.
- 그가 잡은 물고기의 ㉡ 크기에 모두 놀랐다.
- 아이가 나보다 ㉢ 크기에 대학생인 줄 알았다.

- <작성 방법>
- 밑줄 친 ㉠의 품사를 쓰고, 밑줄 친 ㉡과 비교하여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할 것.
  - 밑줄 친 ㉢에 있는 어미의 종류를 쓰고, 이 어미가 밑줄 친 ㉠을 가지는지 밝힐 것.

11.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이러한 마음의 투쟁은 날을 거듭할수록 격렬해 갔다. 수택이가 자기의 피에는 흙의 전통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한 착각이었다. 누르면 누를수록 문화에 주린 도회인의 반항은 역세 갔다. 포근포근한 흙을 밟는 평범한 감촉보다도 가죽을 통해서 오는 포도(鋪道)의 감촉이 얼마나 현대적인가 했다. 그것은 마치 필 대로 편 낚은 지폐를 만질 때와 빠작 소리가 그대로 나는 손이 베어질 것 같은 새 지폐를 만질 때의 감촉과의 차이와도 같았다. 사람에게서나 자연에서나 입체적인 선(線)의 미가 그리웠다.

‘아니다. 참자. 흙과 친하자!’

수택은 벌떡 일어났다. 참새 떼가 ‘와아’ 하고 풍긴다. 이 짧은 도회인이 도회의 환상에 사로잡힌 동안 참새 떼들은 양양해서 벼 톨을 까먹고 있었던 것이다.

“우여 우이!”

건너 다랑이로 옮겨 앉는 참새를 쫓아서는 두둑을 달리었다. 참새 떼는 적어도 수백 마리는 되는 것 같았다. 한 마리가 한 알씩만 까먹었다도 수백 톨을 까먹었을 것이다. 그는 달리다 말고 벼 이삭에 눈을 주었다. 누렇게 익은 벼 포기들이 생기가 없다. 그때 울컥하고 가슴에 치미는 것이 있다. 증오였다. 도시 생활에서 세련이 된 현대인의 증오였다. 이 ㉠ 갖은 정성과 피와 땀으로 가꾼 곡식을 장난하듯 까먹고 다니는 **참새에 대한 증오**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머리에 찬다.

…(중략)…

도합 스물두 마지기에서 사십 석이 났다. 사십 석에서 스물닷 섬이 소작료로 제해졌다. 사십 석에서 스물닷 섬—열닷 섬. 그의 지식은 처음 건조하게 쓰여졌다.

그러나 이 지식은 정확성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 거기서 비료 대로 한 섬 두 말이 제해졌고, 아내와 계집아이들의 설사를 치료한 쌀값으로 장리변을 쳐서 열두 말이 떼였다. 지세도 작인과 지주가 반분해서 물기로 되어 있었다. 지세로 또 몇 말인지 떼였다. 그는 말질을 하는 되감고가 바로 지주나 되는 것처럼 그의 손목이 미웠다. 우르르 덤비어 되감고의 목덜미를 잡아 낚고 벗더미 속에다 꼭 처박고 싶은 충동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었다.

수택은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 옴팡하니 들어간 눈에서는 황혼을 뚫고 무시무시한 살기 먼 빛이 발하는 것이었다. 그는 방공 연습을 할 때의 그 휘황한 몇 줄의 탐조등 광선을 연상하였다. 김 영감은 꿈쩍도 않고 한자리에 서 있었다. 벗더미를 보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마름을 노리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영감은 내년 이때까지 살아갈 길을 궁리하는 것이었다.

“자, 짚어저라!”

수택은 깜짝 놀랐다. 남은 벼 여남은 섬이 가마니에 채워졌다. 전혀 자신은 없었으나 벼 이백 근을 못 지겠노란 말도 하기 싫어서 지겟발을 디어 밀었다.

“엇차.”

옆에서는 벌써 지고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도 ‘엇차’ 소리를 쳤다. 땅땸도 않는다.

“자, 들어 줄 게니, 엇차.”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무릎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오금은 뜨는 등 마는 등 하다가 그대로 푹 꺾인다. ‘안 되겠느니’, ‘다른 사람이 지라느니’ 이론이 분분하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버티었다. 이를 북북 갈며 기를 썼다. 힘을 북 주었다. 오금이 떨어졌다. 그러나 다리가 허청하며 모여 선 사람들의 ‘저것 저것’ 소리를 귓결에 들으며 그대로 픽 한쪽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넘어간 순간,

“에이끼, 천치 자식.”

하는 김 영감의 소리와 함께 빗자루가 눈앞에 휘 한다. 머리에 동였던 수건이 벗겨졌다.

“나오게, 내 짐세. 나와.”

하는 누군지의 말을 영감의 호통 같은 소리가 삼키었다.

“놔두게! 놔둬! 나이 사십이 된 자식이 벼 한 섬 못 지는가. 저라 저, 어서 일어나!”

그는 이를 악물고 또 힘을 북 주었다. 오금이 번쩍 떴다. 뒤뚱 뒤뚱 몇 걸음 옮겨 놓는데 눈과 콧속이 화끈하며 무엇인지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저 피! 코필 쏟는군. 내려놓게!”

하는 동리 사람들 소리 끝에,

“놔들 두게! 제 손으로 지은 제 곡식을 못 저다 먹는 것이 있단 말인가! 놔들 두게.”

수택은 눈물과 코피를 짹짹 쏟아 가면서도 그래도 자꾸 걸었다. 내일은 우리 논 닷 마지기의 타작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억지로 즐기려 노력을 했다.

- 이무영, 『제1과 제1장』 -

<작성 방법>

- ‘수택’에게 **참새에 대한 증오**와 유사한 감정을 유발하는 존재를 작품에서 찾아 쓰고, 그 이유에 대해 밑줄 친 ㉠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 제목(『제1과 제1장』)이 함축하고 있는 주제 의식을 ‘흙’이라는 말을 포함하여 제시할 것.

<수고하셨습니다.>